



의 백성을 이 세상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 신의 죽음을 기대하고 찬송할 수 있었고(고후 5:1~9) 십자가에 못박히시던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향해 부탁하는 한 강도를 위로하실 수 있었다.

믿는 사람들에게 죽음이 더 이상 하나님의 저주의 결과가 아니라면 성도들이 죽음에 이르는 방법들 즉 병이나 사고 등도 하나님의 저주의 결과로만 이해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이곳에 오래 살기를 원하지만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다. 우리의 눈에는 불행하게 보이는 죽음이 하나님 편에서는 정당한 방법의 죽음이다.

이 하나님의 방법과 인간의 기대 사이에 일치하지 않는 간격이 놓여 있을 때 바꾸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기대이다. 즉 저주라고 부르기를 포기하고 우리 마음대로 축복이라고 규정하는 방법을 고쳐야 하는 것이다.

### 나가는 말

십계명의 한 구절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 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출20:5~6)는 말씀을 다름으로 이 글을 마치하고자 한다. 가계저주론이 이 말씀을 가장 확실한 근거 구절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첫째, 이 말씀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아버지의 죄를 자손에게까지 벌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살아 움직이는 저주를 통해 가계를 괴롭게 하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하시겠다는 선언이었다.

둘째, "삼사 대를 벌하신다"는 말씀은 "천 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씀과 나란히 수록되어 있다. 계명을 어김과 벌, 계명을 지키고 은혜가 대조되고 있다. 한 사람에게 지킴과 어김, 그 결과인 삼사 대의 벌과 천 대의 은혜는 항상 선택의 문제로 주어진다. 한 번의 선택으로 운명이 결정되는 그런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다. 지킴 후에 어김이 올 수 있고, 어김이 있을 후에 지킴이 올 수도 있다. 삼사 대의 벌과 천 대의 은혜도 변동하는 개인의 지킴과 어김에 따라 그에게 다르게 적용된다. 물론 그렇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직접 사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셋째, 하나님의 이 계명은 어느 한 세대에만 유효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다음 세대에 그리고 그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계명은 늘 유효하게 적용된다. 한 개인이 하나님의 계명 앞에 늘 새로운 선택의 여지를 가지는 것처럼 다음 세대도 새로운 그들의 선택의 기회를 가진다. 세대 간의 저주와 축복의 일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가 따르지 않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다스림으로만 설명할 수 있다.

넷째, 하나님은 범죄한 사람이나 범죄한 세대가 회개하고 용서를 청할 때 벌을 사하지요 은혜를 베푸실 수도 있다. 즉 삼사 대의 벌은 고정된 운명이 아니다. 가나안 땅을 탐지한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공포에 사로잡혀 "애굽으로 돌아가자" 외치며 소동을 일으켰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 모세에게 그 백성 모두를 멸하시려 하셨다. 다급해진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 르시킴을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